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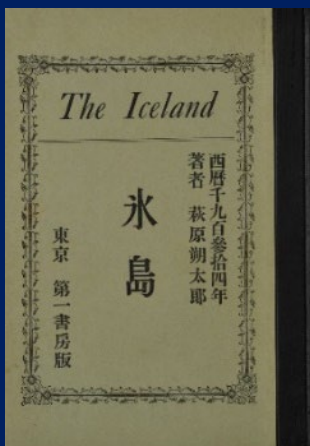
“얼음 섬”



“얼음 섬”(다이이치쇼보)은 1934년에 간행된 사쿠타로의 여섯 번째 시집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집과 크게 다른 점은, 시의 표현이 구어체가 아닌 한문을 중심으로 한 문어체(문장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어시의 선구자였던 사쿠타로인 만큼 문어체로 구성된 “얼음 섬”은 시인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나뉘었습니다.

사쿠타로 자신은 시집의 서문에서 ‘아마 예술품이기보다도 저자의 실생활 기록이자 절실하게 쓰인 마음의 일기일 것이다’라고 서술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여의는 등 사쿠타로의 삶에서도 ‘아픈’ 시기였습니다. “얼음 섬”에 수록된 시는 이러한 사쿠타로 자신의 ‘실생활’을 반영한 감정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음 섬”(1934 다이이치쇼보)